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럽 식민주의의 동기와 영향

조흥국

1. 서론

유럽인들은 15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위 ‘지리상의 발견’과 탐험과 식민화 등의 과정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중엽까지 4세기 반 동안 지속된 이 역사적 과정을 대개 ‘식민주의’라고 부른다.

식민주의는 식민 지배를 당한 비서구 세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에게도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의 자원과 시장은 서구 자본주의의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또 식민지의 인적 자원과 문화는 서구 사회와 문화가 더욱 큰 다양성을 띠게 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식민주의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식민지 세계에 대한 영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식민주의는 식민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는 오늘날 비서구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현상에서 지속되고 있다.

유럽 식민주의의 동기와 영향을 다루는 이 논문은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럽 식민주의의 등장의 동기 및 배경과 동남아시아 세계에 대한 유럽 식민주의의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동남아시아를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 이 지역은 16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식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 세계 중 하나이다. 둘째, 이 지역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식민열강들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1898년부터 1946년까지 지배한 미국 등 식민 지배를 한 서양 식민열강의 스펙트럼이 크며,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기까지 한 곳으로, 식민주의의 경험이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곳이다.

유럽 식민주의는 동남아시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그 영향이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민지에 소개된 서구의 의회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절대군주 체제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식민지에 도입된 서구식 행정 체제는 정치 제도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것은 태국 같이 식민 지배를 겪지 않은 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쳐 절대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전환되도록 했다. 식민주의는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산업화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러나 식민주의는 동남아시아 토착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상업적 활동을 위축시켜 오늘날 그들의 상업적 기질과 성향이 거의 사라지게끔 하기도 했다. 또 최근까지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도처에서의 유혈적인 종족·종교·영토 갈등 및 분쟁도 그 뿌리에는 식민주의가 놓여 있다. 실로 현대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는 식민주의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동남아시아 식민화의 개관

동남아시아의 식민화는 16세기 초에 시작되어 20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다. 식민화의 시기와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다. 필리핀은 16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400년간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갖고 있는 데 비해, 라오스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약 6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다. 태국은 식민 지배의 과거가 없다. 동남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시기는 서양 열강들에 의한 식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9세기에 비해 서양인들과의 접촉이 불연

속적이며 국지적으로 일어난 기간이었다.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은 동남아시아 사회에 총과 화포를 도입하고 기독교를 전파하고 유럽 자본을 침투시키고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을 뿐이었다. 또 유럽인들의 그러한 활동이 동남아시아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18세기까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운명은 대부분 이 지역 원주민들의 손에 놓여 있었으며, 고대에 형성된 동남아시아의 전통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사회적, 문화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럽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1498년 바스코 다 가마가 동인도로의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511년 알부케르크의 지휘 하에 포르투갈 해군은 당시 동남아시아 향료무역의 가장 중요한 중계무역항인 므라카를 점령했다. 포르투갈의 므라카 점령은 유럽인들에게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입로를 열어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로써 유럽인들은 당시 무슬림 상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향료무역에 직접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포르투갈인들은 곧 향료 산지인 말루쿠제도 즉 향료제도로 그들의 무역 활동을 확대하여 1522년에는 당시 말루쿠제도에서 무역 중심지이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세력이었던 트르나테에 요새를 세우는 등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에 무역 기지를 건설했다.

동남아시아에서 향료무역에 직접 참가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포르투갈의 의도는 스페인에 의해서 답습되어, 마젤란이 1521년에 필리핀에 도착했고, 1565년에는 레가스피가 세부섬을 점령함으로써 스페인에 의한 필리핀의 식민화가 시작되었다. 스페인 군대는 우선 중부의 비사야스제도와 북부의 루손섬을 정복해나갔다. 스페인의 필리핀 정복은 큰 저항을 만나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루손과 비사야스제도에는 당시 인구수나 영토의 크기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왕국이 없었으며, 가장 큰 정치적 단위라고 해봤자 고작해야 수백 명의 주민을 가진 “바랑가이”라고 불리는 촌락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적인 저항력이 있는 중앙집권적인 왕국이라고는 술루제도와 민다나오섬의 몇몇 이슬람 왕국들뿐이었다.

중상주의에 입각한 해외무역 개척에 대한 관심이 고조했던 17세기에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아시아 무역에 가담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동인도회사들은 인도 혹은 동남아시아에 무역 본부를 세우고 인도양과 중국해에서의 무역을 두고 상호 경쟁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영국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좌절시키고 1641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므라카를 빼앗음으로써 17세기 말에는 그 무역 경쟁에서 승리자로 남았다. 네덜란드는 19세기 초까지 말레이반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의 도서 세계에서 광활한 식민지를 구축했다. 영국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지 건설을 위한 노력을 재개한 것은 18세기 말 이후였다. 인도를 이미 식민 경영하고 있던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이 갈수록 증대하자,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동남아시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영국은 19세기 말까지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미얀마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지 확보에 가장 늦게 나선 프랑스는 19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식민지로 만들어 이른 바 인도차이나 세계를 탄생시켰다.

3. 유럽 식민 진출의 배경과 동기

1) 군사력의 우위

식민지 개척의 영토적 목적을 위해, 향료무역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혹은 기독교 전파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유럽인들은 대개 토착인들에 비해 군사적으로 우월했다. 특히 16세기 초 당시 남중국해와 인도양의 향료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무슬림 상인들보다 나은 항해 기술과 전투력, 특히 더욱 우수한 함포를 갖춘 포르투갈인들은 아시아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무역 기지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군사적 우월성을 스스로 인식한 유럽인들은 토착인들과의 첫 만남에서 군사력을 동반한 자신들의 위용을 과시하는 것에서 주저하지 않았으며, 만약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통한 의지의 관철도 서슴지 않았다.

전통적인 정치 구조와 사회 관습 그리고 경제 방식을 갖고 있는 토착인 사회가 유럽인들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비현실적이었으며, 이런 경우 무력적 충돌은 불가피했다. 예컨대 향료무역을 독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네덜란드동인도회사(VOC)는 육두구가 생산되는 인도네시아 동부의 반다제도에서 토착 세력과의 협상이 질질 끌자, 1621년 초대 총독인 얀 피터르스존 쿤의 지휘 하에 12척의 함대를 파견하여 약 15,000명의 주민들을 학살하거나 바타비아로 끌고 와 노예로 만들거나 외딴섬들에 버렸다. 쿤은 그 곳에 네덜란드인 재배자들과 이들의 노예 인부들을 이주시켜 모든 생산물을 VOC에 납품하도록 만들었다. VOC는 1669년에는 술라웨시섬 남단의 마카사르를 점령하여 동남아시아에서의 향료무역을 완전히 독점했다.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 군대는 약 3만 발의 총알을 쏘았다고 한다.

유럽 식민열강들은 19세기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를 만들 때도 많은 경우 무력에 호소했다. 영국은 태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에게 자유무역 이론에 입각한 문호개방을 요구했을 때, 왕실독점의 전통적인 무역체제를 갖고 있던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에 응하지 않자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미얀마 정부는 1850년대에 모든 해안 지방을 포함한 남부와 중부를 영국에게 빼앗겼고, 태국은 불평등조약을 맺고 문호개방을 강요당했다.

2) 유럽 중심주의

유럽인들은 토착인 사회와의 첫 만남에서는 불안정하고 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한 자세는 그러나 군사적 우월성으로 인한 자신감과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토착인들에 대한 지배 욕구와 결합된 무분별한 오만과 방종으로 발전하기가 일쑤였다. 그들은 토착인들을 ‘야만적’ 혹은 ‘미개한’ 인종으로 격하시키고, 그에 따라 그들을 차별했다. 유럽인들은 서구적 생활방식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간주했으며 토착적인 문화는 저급한 것으로 멸시했다. 그러한 구별 및 차별 인식은 서구 문화와 토착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적어도 진지해야 할 학문적 판단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종종 ‘유럽 중심주의’라고 불리는 유럽인들의 문화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럽 중심주의의 태도는 식민주의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토착 문화에 대한 멸시로, 다른 한편으로는 토착 사회에 대한 이른 바 ‘문명화 사명’으로 나타난다. 전자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저명한 구조주의 인류학자인 레비 스트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형태라고 자부하는 형태와는 가장 동떨어진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미학 등의 문화 형태들을 무조건 거부해 버린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우리 각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태도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또 굳건한 심리적인 기반 위에 자리잡고 있는 태도다. 미개인의 관습,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는 이질적인 생활방법, 믿거나 또는 사고하는 방법과 만나면 수많은 야비한 반응의 그와 같은 전율, 바로 그러한 혐오를 나타낸다.

스트로스에 의하면, ‘미개한’ 혹은 ‘야만적’ 이란 뜻의 ‘barbarian’이란 용어는 의미를 가진 인간의 언어와는 달리 의미가 불분명한 새의 울음소리에 그 기원을 갖고 있다. ‘야만’을 의미하는 또 다른 용어인 ‘savage’는 ‘숲으로부터’ 라는 뜻의 라틴어 어원인 ‘silvaticus’에서 파생한 것으로, 그 주변에는 토착 원주민을 숲의 동물 혹은 적어도 원숭이와 같은 존재로 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명화 사명’의 측면은 위르겐 오스터함멜의 다음의 글에서 잘 엿볼 수 있다.

16세기 이베리아 국가들 및 영국의 식민지 이론가들 이래, 유럽의 팽창은 보편적인 사명의 달성으로 웅대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보편적인 사명으로는 이교도 전도라는 신의 구원 계획에 대한 기여, ‘야만인’ 혹은 ‘미개인’의 문명화라는 위업, 특권을 수반한 ‘백인의 부담’ 등이 언급

되었다. 여기에는 항상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근거로 놓여 있었다.

‘문명화 사명’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 경영의 실제에 있어서 특히 토착인들에 대한 근대적 교육의 실시를 통해 표출되었다. 많은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한편으로는 악마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 같은 야만적인 토착 원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인식은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풍미한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신들이 비서구 식민지 세계의 사람들을 개화시켜 더욱 문명화된 사회로 인도해야 할 후견 내지는 보호감독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3) 경제적 이익

식민지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16-17세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의 초기 동남아시아 식민 진출의 주 동기를 이루었다. 경제적 이익 추구는 유럽 국가들이 동남아시아에서 19세기 이후 서구의 자원 공급지 및 상품 수요지로서의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 나폴레옹전쟁으로 1790년대 초부터 1814년경까지 유럽에서의 상황에 얽매어 있던 유럽 열강들은 나폴레옹전쟁이 끝난 후 아시아로의 본격적인 식민지 진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동인은 18세기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유럽에서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원공급지 및 상품수요지로서의 새로운 식민지 개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서구인들의 아시아 진출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중국의 시장 개방과 자원 개척을 위한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대륙 동남아시아의 육로를 통한 중국 서남부로의 진출이 무엇보다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세기 초 싱가포르를 건설하고 제1차 영국-버마 전쟁에서의 승리로 미얀마의 서부와 남부 일부분을 점령한 영국은 1830년경이 되면 인도차이나 지역으로의 식민 진출도 꺾하고 있었다. 이 점은 이 해에 런던에서 출판된 콘더의 *The Modern Traveller*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영국이 수년 이내 베트남의 다낭 지역에 상관을 세우고 북부 베트남의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영국의 증기선이 사이공강을 왕래하고 메콩강을 따라 운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동아시아 진출에 대한 서구 세계의 관심 가운데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메콩강 상류를 통해 중국 서남부로 진입하는 것으로서, 이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미얀마의 영국 상인들과 군인들이 논의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 내륙 시장의 개척을 둘러싸고 영국과 경쟁하고 있었던 프랑스도 메콩강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컸으며, 그것은 메콩강 델타의 농업적 개발과 1860년대 중엽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식민지 경영 그리고 1890년대 중엽 라오스를 식민지로 만드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4) 기독교의 전파

식민 진출에서 경제적 동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 전파에 대한 열정이었다. 선교의 정신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태복음 28: 19)라는 신약성경의 기독교 전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유럽인들의 비서구권으로의 초기 기독교 전파는 15세기 로마교황청의 적극적인 선교 정책을 바탕으로 그리고 포르투갈 및 스페인 왕실의 선교에 대한 열정에 의해 추진되었다.

로마교황청은 1450년대에 선교와 관련하여 세 개의 중요한 교서(敎書)를 발행했다. 그 중 1455년 1월에 발행된 두 번째 교서인 『로마누스 폰티팩스』에서 교황은 포르투갈의 해양 활동과 해외 정복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유명한 ‘항해사 엔리크 왕자’(1394-1460)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해로로 동인도의 원주민들과 접촉하여 이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들과 연합하여 동

인도 세계의 무슬림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정신을 높이 칭찬했다. 『로마누스 폰티팩스』는 이어서 포르투갈에게 모로코와 동인도 세계의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기독교로 개종할 권한을 부여했다.

기독교는 16세기 초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서구 식민 세력의 무역 및 군사적 이해관계와 함께 유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중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훨씬 일찍 동남아시아에 전해졌다. 동남아시아에서 가톨릭의 영향을 처음으로 세운 유럽인은 1511년 므라카를 점령한 포르투갈인이다. 그러나 가톨릭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확고하게 남아 있는 곳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이다. 이 두 사례에서 가톨릭의 영향은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식민주의가 종교적 개종을 강조하는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은 개종 문제를 밀고 나가는 것에서, 비록 ‘항해사 엔리크 왕자’ 시대 15세기에 한 때 열정적이었지만, 그 후 스페인에 비해 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작은 국가를 이루며 주로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세계 도처에 몇몇 항구와 정착지의 형성 이상으로 식민지를 건설할 만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했다. 식민 세력으로서의 포르투갈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1641년에 므라카를 VOC에게 빼앗기는 등 17세기에 기울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스페인은 1898년에 섬들을 미국에 양도하기 이전까지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필리핀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

17세기 베트남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가톨릭은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베트남에서의 가톨릭은 비록 17세기와 18세기에 복잡한 운명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19세기 후반에는 프랑스의 식민주의 이해관계에 의해 후원을 받게 되었다. 오래 전부터 유교적 모델에 따라 국가 행정체제가 이루어져 있었고 불교와 도교가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던 베트남에서 가톨릭을 전파하려는 프랑스 신부들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종교적 탄압을 초래했다. 1820년대에 다시 시작된 베트남 정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금지 정책은 1840년대 특히 짜에우찌(재위 1841-1847)와 뚜득(재위 1847-1883)의 통치 시대에 더욱 엄격히 시행되어, 추측에 의하면 1848년부터 1860년까지 25명의 유럽인 신부와 300명의 토착인 사제 그리고 약 3만 명의 현지인 가톨릭 신자들이 베트남에서 살해되었다. 기독교도들에 대한 탄압은 마침내 프랑스 정부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당시 루이 나폴레옹(재위 1848-1870)의 프랑스 정부에서 강력한 파벌을 형성하고 있던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있었다.

베트남에서 가톨릭은 개신교 교파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지배 시기에는 퇴보를 겪었지만 오늘날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수의 신도들을 갖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최대의 기독교 교파로 남아 있다. 요컨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지속적인 기독교의 존재를 처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의 초기 상업적 및 식민적 팽창 사업에 종종 병행되었던 가톨릭 사제들의 사역 덕분이었던 것이다. 비록 기독교의 존재는 각 나라에서의 식민 지배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등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서 고르게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역의 상당한 부분에서 문화적, 교육적 및 종교적 생활에 영속적인 영향력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일련의 운동을 통해 선교 활동을 전개한 개신교는 가톨릭보다 훨씬 뒤에 동남아시아에 도래했다. 개신교 선교는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17세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선교는 19세기 이후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영국은 초기에 광대하고 복잡한 인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선교 활동은 네덜란드에 비해 늦게 시작했다. 하지만 1824-26년의 제1차 영국-버마 전쟁의 결과 미얀마의 일부 영토를 식민지로 만들고, 1824년의 영국-네덜란드 조약으로 말레이반도에서의 영국의 식민 진출이 자유롭게 되자, 영국은 신속하게 개신교 선교사들의 유입을 도왔다. 그 과정은 선교적 노력과 식민 및 상업적 이해관계 간의 협력이었다.

가톨릭의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종종 군사적인 힘을 동반하여 전파되었다. 개신교의 경우에도 식민 행정가들에 의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선교가 행해졌던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대

개 합의된 정책에서라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기독교 발전의 몇몇 유형들, 특히 예를 들면 식민주의 시대 후기와 식민주의 종료 후에도 토착원주민 기독교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성장한 것, 개종이 다양한 민족들과 지역에서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토착인 교회 지도자가 일찍부터 배출되었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의 전파가 전반적으로 볼 때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럽 식민주의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

1) 민족주의 운동

식민주의 시대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발전은 외형적인 번영과 내부적인 빈곤이라는 모순적인 구조를 낳았다. 내부적 빈곤은 특히 농촌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식민 체제 하에서 한편으로는 수출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총생산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토착인 지주, 식민 관리, 고리대금업자 등이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농촌의 부채와 빈곤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된 농민들의 증대되는 불만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식민 정부들이 농민들을 시장경제의 불안정한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수익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만 관심을 두어 그들을 빈궁한 상태로 더욱 압박했기 때문이었다.

식민주의는 동남아시아 사회에 서양의 사상과 학문을 보급시키고 근대적인 학교교육 체제를 도입했다. 식민지들에 도입된 서구식 학교 교육은 비서구 주민들의 ‘문명화 사명’이라는 동기 외에도 식민 행정을 위한 토착인 인력을 양성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근대적 학교 교육을 통해 자국의 피식민 현실과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토착 엘리트들은 근대화의 혜택이 대부분의 경우 서양인들과 토착 원주민의 일부 계층과 지주들 그리고 화인(華人)이나 인도인 등 아시아 이민들에게만 돌아갔지 민중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다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되어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이끈 사람들은 이처럼 서구식 근대적 교육의 혜택을 받은 토착 엘리트들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동남아시아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은 근대적 사상과 학문의 교육을 수반한 식민주의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은 19세기 말 스페인으로 간 일루스트라도스 즉 개화파 엘리트층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프로파간다 운동’을 조직한 호세 리살이었다. 필리핀 민족주의 운동에서 엘리트층의 역할의 중요성은 그 이후 혁명적인 노선으로 전환된 민족주의 운동이 일루스트라도스들의 협력을 획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지지부진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은 1908년에 창설된 부디 우토모였다. 토착인 의사들을 양성하는 자와 의사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디 우토모는 자와 문화의 발전과 근대적인 유럽식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와 사람들이 식민 정부에 대해 더욱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전통적인 엘리트층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것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미얀마에서는 근대적인 학교가 영국인들에 의해 도입됨으로써 전통적으로 학교의 기능을 해오던 불교사원의 역할이 점차 약해지고, 그 대신 세속적 학교들 특히 식민 정부와 선교 단체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 가운데 외세 지배의 현실에 눈을 뜬 자들이 1906년에 청년불교도협회를 설립했다. 미얀마의 불교가 유럽인의 식민 지배로 위협받겠다고 생각한 그들은 불교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미얀마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얀마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평가되는 청년불교도협회는 점차 여러 민족주의 단체들을 산하에 수용했으며 1921년에는 ‘버마협회총회’로 개칭하여 그 정치적인 성향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근대적 교육의 확산으로 증가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1920년에 랑군대학교의 설립을 낳았다. 이 대학교의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1932년에 ‘도버마 아시아운’ 즉 ‘우리 버마협회’가 설립되었다. 스스로를 ‘떠깬’ 즉 ‘주인님’이라고 부른 도버마 아시아운의 회원들은 강한 주권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조국의 독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이 단체는 아웅 산, 우 누, 네 윈 등 뒤에 미얀마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을 배출했다.

베트남의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판 보이쩌우는 베트남의 장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생을 파견하는 소위 동유(東遊)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1912년에는 중국의 쑨원(孫文)의 동맹회를 본받아 베트남광복회를 조직하는 등 혁명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군주제의 바탕 위에서 건설하려고 했다. 그에 비해 판 쭈쭈은 군주제를 폐지하고 서구식 근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참여한 동경의숙(東京義塾)에서 잘 나타난다. 일본의 게이오(慶應) 의숙을 모방하여 1907년에 하노이에서 개설된 동경의숙은 학생들에게 근대적인 교과 내용을 가르쳤으며 강연회와 출판 사업을 통해 베트남인들에게 근대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다.

2) 새로운 지역 개념과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여러 지리적 개념들을 내부적 관찰과 외부적 관찰의 두 시각에서 비교분석하면 흥미로운 측면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필리핀’이란 용어는 스페인 군대가 16세기 후반에 오늘날 필리핀의 여러 지역들을 정복한 후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2세(재위 1556-1598)의 이름을 따라 정복지에 붙인 명칭이었다. 필리핀은 스페인에 의한 식민지 이전에는 하나의 영토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랑가이’라고 불리는 촌락이 가장 큰 정치적 단위였다. 오늘날 필리핀 국가와 민족을 가리키는 ‘필리핀’은 필리핀 토착인들에게는 원래 없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필리핀 국민들이 ‘필리핀’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의 식민주의를 통해 탄생된 새로운 지리 내지는 국가 개념인 ‘필리핀’이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의 국가적 정체성의 중심점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은 ‘인도네시아’라는 용어에서도 확인된다. ‘인도네시아’는 1850년경 영국인 조지 얼과 제임스 로건이 동인도의 도서 세계를 지칭하기 위해 ‘Indo’와 ‘섬’이란 의미의 그리스어 ‘nesos’를 합성하여 처음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그 후 1884년 독일의 인류학자인 아돌프 바스티안이 아프리카 동안의 마다가스카르와 타이완 사이에 놓여 있는 섬 세계를 가리키기 위해 쓰기 시작한 이래, 학술서적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인도네시아의 식민지에 대한 당시의 공식적 명칭인 ‘네덜란드령 동인도’ 대신 점차 사용되었으며, 1948년에는 자카르타의 네덜란드 식민지 행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유럽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도입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인들에 의해서도 1920년대부터 점차 받아들여져 1949년 독립한 인도네시아의 공식적 국가 명칭이 되었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들과 국민들의 국가적 정체성 의식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 지표가 되어 있다.

‘동남아시아’란 용어는 미국인 목사 하워드 말컴이 1840년에 출판한 한 여행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구미 세계에 점차 퍼져 오늘날 이 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정착된 것으로, 식민주의 시대에 서양인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동기에서 탄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지녀온 동남아시아 토착인들에게는 과거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어떠한 집단적 지역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왕국이나 도시 혹은 심지어 마을 차원을 벗어난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던 토착인들은 ‘동남아시아’란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시아’는 토착 원주민들의 내부적 관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으로서, 어디까지나 외부적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란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포괄하는 ‘인도차이나’는 프랑스인들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

는 지역을 가리키기 위해 식민주의 시대에 만든 조어(造語)로서, 상이한 민족과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지니고 있는 이 세 나라들을 하나의 식민지 세계로 인위적으로 묶은 외부적 관찰에서 탄생되었다. 이 용어에 대해 이 지역에 식민지 제국을 건설한 프랑스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베트남 사람들은 ‘인도차이나’를 한편으로는 식민지 피지배의 역사적 경험과 결부된 불쾌한 용어로 기억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사람들과 라오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 및 문화적 고유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외부적 관찰의 산물에 불과한 ‘인도차이나’를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3) 국경의 확정

서구의 식민주의는 오늘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경 확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위에서 서술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대륙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상호 국경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유럽의 식민 지배의 결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웃국가와의 명확한 경계를 중시했다. 15세기 초 베트남이 중국 군대에 대해 승리하고 명(明)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베트남의 응우옌 짜이 장군은 “우리 다이 비엣 국(國)은 진실로 문명된 국가이다. 산천의 봉역(封域)이 다르듯이 남북의 풍속 또한 다르다”고 쓰면서 북쪽의 중국과 남쪽의 베트남이 상호 국경을 가진 별개의 국가임을 강조했다.

그에 반해 식민주의 전의 시기 다른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실 국경 개념이 없었거나 희미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경’보다는 ‘변경’ 개념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변경’이란 곳은 대개 중앙의 권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한편으로는 반독립적인 내지는 거의 독립적인 토호 세력에 의해 지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 국가의 주민과 문화적 영향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공간이었다. 그러한 변경은 중앙의 정치·군사·경제·문화의 힘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곳으로 결코 국경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유럽인들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였다. 예컨대 태국은 쫄라공곤 즉 라마5세 시대인 1885년에 왕실측량청을 신설하고 변경 지방에 대해 본격적으로 측량과 지도제작을 시행하여 변경을 국경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것은 당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식민화한 프랑스가 식민지를 라오스와 태국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유럽 식민주의를 통한 국경 확정은 종종 인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간 국경을 들 수 있다. 태국 남단의 빠따니, 사똘, 알라, 나라티왓 등 네 개의 주는 말레이계 무슬림이 지역 주민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 이 지역은 원래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말레이 세계의 일부였다. 이 지역이 불교 국가인 태국에 속하게 된 것은 타이족의 팽창정책의 결과이다. 태국은 이미 18세기 말이 되면 위의 네 지방뿐만 아니라, 그 남쪽에 있는 케다, 클란탄, 트렝가누를 자신의 속국으로 두고 있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간 오늘날의 국경선은 1909년 말레이시아를 당시 지배하던 영국과 태국 간 국경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 조약으로 클란탄, 트렝가누, 케다, 그리고 케다에서 떨어져 나온 프를리스는 영국령 말라야로 넘어 갔고, 빠따니, 사똘, 알라, 나라티왓은 태국의 영토로 남게 되었다. 이 네 지방의 인구의 대부분이 말레이인이고 무슬림이었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영국과 태국 간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중시되어 자의적으로 국경이 그어졌던 것이다.

4) 기독교의 전파와 역할

16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 도입된 이후, 기독교는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퍼져 있다. 기독교는 필리핀과 동티모르에서는 각각 93.2%(개신교 21.1%)와 89.2%(4.07%)의 기독교인 인구비율을 갖고 있다. 이 두 나라의 기독교는 각각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주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기독교는 비록 기성종교인 불교나 이슬람에 비해 그 문화적 위상이 현저히 약하지만, 인도네시아 16%(8.63%), 싱가포르 14.6%(8.68%), 브루나이 11.3%(5.73%), 말레이시아 9.21%(5.02%), 미얀마 8.7%(7.36%), 베트남 8.16%(1.46%), 라오스 1.85%(1.10%), 태국 1.62%(0.9%), 캄보디아 1.19%(0.98%) 등 나름대로의 교세를 확보하고 있다. 기독교가 동남아시아에서 전통적인 민간신앙과 유교, 불교, 이슬람 등 기성종교들의 벽을 뚫고 나름대로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동남아시아 사회는 전통적으로 타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어 왔다. 이 점은 타문화에 대해 비교적 더욱 배타적인 중동의 이슬람권이나 남아시아 힌두권 등에서의 상황과 비교할 때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교회와 선교사들과 현지인 기독교인들이 과격한 무슬림들에 의해 물리적 피해를 입는 불행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그것은 최근 이 지역에서의 이슬람이 급진적으로 된 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슬람주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즉 이슬람을 국교로 표방하기를 거부한다. 게다가 이 나라들의 이슬람 문화가 비이슬람적인 관습과 심지어 민간신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미얀마와 라오스와 베트남 등지에서 선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그 지역의 어떤 반기독교적인 문화적 배경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나 반서방적인 독재적 국가정책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정령신앙, 샤머니즘, 조상숭배 등 민간신앙은 가정과 마을 등 지역사회의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데 비해, 기독교는 어느 곳에 가서도 그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는 종교였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이러한 휴대성은 16세기 이후 유럽 식민주의의 도래 이후 상업과 무역이 더욱 중시되고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벗어난 공간적 활동이 점점 더 많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에 많은 동남아시아 현지인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셋째, 기독교는 경제적 및 정치적 힘을 가진 종교로 인식되었다. 동남아시아의 토착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만난 기독교인 유럽인들은 대부분 상인 혹은 군인들이었다. 토착인들은 부유하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서양인들이 믿는 종교가 그들에게 그러한 부와 물리적 힘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했다. 특히 산악 혹은 밀림 지역의 소수민족들의 경우, 그들은 종종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역신보다 훨씬 강력한 영적 존재로 보았으며 서양인들이 소개한 하나님의 영역이 고산족들이 살고 있는 산악 지역을 훨씬 넘는 데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지배적 제도종교에 필적할 만한, 심지어 식민 지배자들의 종교라는 점에서 불교나 이슬람보다 더욱 권위 있는 종교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기독교가 동남아시아에서 고산족과 밀림의 부족들에서 더욱 많은 개종자를 획득해 온 것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측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동남아시아에는 불교도와 무슬림들 외에도 많은 숫자의 다양한 고산족들과 밀림의 원시 부족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 이슬람 등 그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 민간신앙을 갖고 있다. 불교도나 무슬림들은 자신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굳이 타종교로의 개종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심지어 타종교로의 개종을 통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이미 열등한 위치에 있는 고산족이나 원시부족들은 강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지 않는 민간신앙을 쉽게 버릴 수 있다.

기독교는 불교와 이슬람이 지배하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최근 역동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기성종교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시티하비스트 교회의 경우, 창립된 지 불과 20년 만인 2010년 초 현재 출석 교인이 27,000명에 달하는데, 그 신자의 대부분이 2-30대 청년으로 교인 평균 나이가 26세이다. 시티하비스트 교회의 공히 목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 기독교로 개종하는 청년들의 90%가 25세 이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한다. 기독교가 오늘날 싱가포르의 신세대의 문화에서 얼마나 역동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독교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오래된 기성종교 불교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젊은 층에서 비교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독교의 선교가 식민주의 기간 동남아시아의 근대화와 깊은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유럽의 산업화와 과학혁명의 시대인 19세기에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선교단체들은 동남아시아 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도구로 작용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매우 두드러졌다. 서구의 거의 모든 선교단체들은 처음부터 식민지 주민들의 교육을 중시했다. 가톨릭교회의 경우, 특히 필리핀에서 성공적인 교육 사업을 전개했다. 1611년에 설립된 산토 토마스 대학교와 1859년 예수회가 설립한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개신교 선교단체들은 산간벽지에서 대도시로 이르기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신학교 및 대학을 세웠다. 이러한 소위 ‘미션스쿨’에서 근대적인 교과 내용의 학문을 공부하고 특히 영어를 배운 토착인들은 공공기관과 전문직종과 비즈니스에서 지도자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의료와 보건 사업에도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서구식 의료 기술과 진료 시설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가톨릭 선교단체였다. 예컨대 마닐라의 산 라사로 병원은 1577년 스페인 신부에 의해 진료소로 시작된 것이었다. 개신교 선교단체들의 의료 사업은 특히 19세기 이후 전개되었다. 서구 기독교 단체들은 또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현지 농민들에게 보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독교는 동남아시아에서 근대적 지식과 가치관을 갖춘 지식인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토착 현지인들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과 평균수명의 연장 그리고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의 변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5) 복합사회의 형성과 지역·종족·종교 갈등

식민주의의 사회적 영향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공간의 상업화와 도시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전통적 동남아시아 도시들은 식민 통치와 유럽의 경제적 영향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어, 시장과 무역이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칼라룸푸르, 베트남의 하이퐁,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메단 등 새로운 행정, 교통 중심지들과 베트남 북부의 하이퐁, 말레이반도의 페낭, 싱가포르, 미얀마의 양곤 등 수출 무역을 위한 새로운 항구도시들이 발전했다.

경제적 발전 및 도시화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 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많은 노동력 유입이었다. 특히 영국 통치 하의 식민지들에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인구수의 대폭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그것은 차후 국민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심각한 민족 갈등의 뿌리가 되었다.

인도인들의 이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난 나라는 특히 미얀마였다. 19세기 중엽에 하부 버마를 식민화한 영국은 델타 지방에서의 농업과 산업에 투입될 노동력을 인도에서 수입하는 정책을 택했다. 그 결과 1872년이 되면 인도인 인구는 14만 명으로 당시 미얀마 총인구의 약 5%에 달했고 1931년이 되면 100만 명 이상이 되어 총인구의 7%를 접하게 되었다. 인도인들은 식민 시대 미얀마의 상업 및 산업에서 화인을 제치고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했는데, 바로 그러한 지배적인 경제적 위상 때문에 그들은 버마인들에게 혐오와 적대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 말에 ‘하부 버마’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퍼진 사야산 반란이었다. 버마인 농민들의 불만으로 터진 이 반란으로 델타 지역에서 화인들도 십수명 살해당하고 화인 가게들이 약탈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식민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주 공격대상은 식민 관료들과 특히 체피아 즉 인도인 상인들이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특히 중국인 즉 화교·화인에게서 현저하다. 화인은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3,000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

가들에서 자본 시장의 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화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은 서구 자본의 진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유럽인들은 중개인으로서 중국 상인들을 필요로 했다. 특히 영국인들은 18세기 말 이후 말레이반도와 싱가포르 그리고 보르네오섬에서 벌인 무역과 광산업, 플랜테이션에 필요한 인력을 위해 중국인들을 끌어들였다.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비록 그 규모는 작았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홍콩은 중국인 노동력을 동남아시아로 유출시키는 가장 중요한 항구가 되었다. 이로써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토착 사회로의 동화를 거부하는 경향을 가진 화인들과 이들을 경원시하는 토착 사회 간 갈등의 장이 마련되었다.

토착 원주민들과 중국인 및 인도인들 간의 갈등은 ‘복합사회’ 개념으로 설명된다. 복합사회는 대개 서양인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에서 나타나는데,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지들의 경우 복합사회의 상층부에는 서양인들이, 하층부에는 토착 원주민들이, 그 사이에는 인도인과 중국인 등 아시아 이민 사회나 토착 소수민족들이 놓여 있다. 이 집단들은 각각 그 정치적인 관심과 경제 활동의 목적이 다르며 문화도 대부분의 경우 같지 않다. 이 집단들 사이에는 공통된 국가적 의지는 물론 공통된 사회적 요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복합사회에서는 식민 정부와 같은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이 없으면 집단들 간에 알력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독립 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토착 원주민과 아시아 이민자들 간 혹은 토착 원주민과 소수민족들 간 분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였다.

6) 무역 활동의 퇴보와 경제적 빈곤

동남아시아는 적어도 17세기 초까지는 한편으로는 지역 내 국가들 간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 활발한 무역,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페르시아 및 아랍 세계와의 긴밀한 무역관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있었다. 그 무역 활동에는 중국인, 인도인, 페르시아인 및 아랍인 등 외래 아시아 상인들뿐만 아니라, 말레이 상인, 아체 상인, 자와 상인, 마두라 상인, 부기스 상인, 술루 상인 등 동남아시아 도서부의 토착 상인들도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토착 상인들은 동남아시아에서의 국제적인 상업 활동의 무대에서 17세기 중엽 이후 점차 퇴장하여, 그 후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상업과 국제무역은 거의 모두 외국 상인들의 손에 넘어 갔으며, 그것은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 퇴보를 가져왔다. 역사학자 앤터니 리드는 그러한 변화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에서의 무역을 독점하려던 유럽인들의 경제적 탐욕과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력 사용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었다고 본다.

이미 16세기 초 포르투갈은 므라카를 점령하여 말라카 해협 일대의 국제적인 무역시장을 침체 상태에 빠트렸고 토착 말레이 상인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스페인은 16세기 말에 필리핀 남부의 술루제도와 향료제도를 공격했으며, 이로써 이 섬들과 무역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보르네오 섬 북부 연안의 브루나이 왕국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상당히 상실했다. 도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토착적인 상업 및 무역 세력을 약화시킨 결정적인 유럽인은 네덜란드인들이었다. 향료무역의 독점을 추구한 VOC는 17세기 초부터 향료제도의 섬들을 점령하고 그 향료 생산과 거래를 철저히 통제 내지는 장악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VOC는 1656년까지 암본과 트르나테 등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항하는 모든 토착인 세력을 제압하고 정향을 암본에서만 재배하게 하는 등 완전한 독점을 달성했다. VOC는 1669년에는 마카사르의 핵심 항구인 솜바오푸를 점령하여 향료제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향료의 거래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었다. 또 VOC는 1683년 후추의 주요 수출항이었던 자와 섬 서북부 연안의 반턴을 굴복시켜 후추 무역도 독점했다. 이처럼 반턴과 마카사르는 네덜란드인들에게 점령되고 그 상업 활동이 위축 내지는 종식됨으로써 그 후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은 중단되고 말았다. 17세기 말이 되면 도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왕족과 귀족들은 후추 무역으로 인한 위협과 시장의 불안을 두려워하여 차라리 후추 생산을 포기하고 자급자족적 경제로 돌아가려고 했으며, 향료 무

역에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역사에서 말레이반도 남부에서부터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토착 원주민들이 17세기 말 이후 국제적인 무역 시장에서 혹은 국내의 대규모 상업에서 활발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분야에서의 경제 활동은 대부분 유럽인들과 특히 화인 등 외래 상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도서 동남아시아의 토착 원주민들의 오랜 무역 전통이 이처럼 약화 내지는 단절된 것은 무엇보다도 유럽인들의 식민주의가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이다.

동남아시아가 오늘날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대부분 화인 자본에 장악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인들의 지배적인 경제력은 현지사회 전반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어 현지 정부의 지속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대 중엽 동남아시아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자들 중 86%가 화인이었다. 동남아시아 전체를 두고 볼 때 상업에서 소매는 3분의 2가 화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문제는 동남아시아 산업 자본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화인이 대개 소수민족으로 사는 존재로서, 비록 그 나라 국민이 되어 있지만, 토착 원주민 국민에 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 내지는 애착심이 적거나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싱가포르의 다수민족을 이루는 화인들은 경우가 다르다. 많은 화인 사업가들은 대개 단기적인 전망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화인 기업가들 중에는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점차 탄탄한 생산력을 갖춘 대규모 제조업 회사를 건설하려는 대신, 부동산과 금융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펼치는 자들이 많다. 아시아의 최상위 500개 화인 기업의 주력 사업 분야를 분석해보면, 1위가 부동산 개발 및 토지 사업으로 무려 119개 기업이 이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2위는 37개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은행업이며, 3위는 역시 37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호텔업이다.

동남아시아 경제의 이러한 부정적인 존재인 화인이 이 지역에 오늘날처럼 많이 들어와 살고 또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의 역사적 배경에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유럽 식민주의가 놓여 있다. 16세기부터 크게 활성화된 중국 상인들의 남양(南洋) 진출은 당시 유럽인들의 진출에 따른 동남아시아 무역시장의 확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한 것이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 뛰어들어 유럽인들은 중개인으로서의 중국 상인들을 필요로 했으며,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화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17세기 중엽-19세기 말 동남아시아 화인사회의 수적 증대는 무엇보다도 유럽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화인 연구가인 왕경우의 표현을 빌자면, “중국인들의 상업적 활동은 유럽인들의 깃발을 따라갔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특히 영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구축한 19세기였다.

5. 결론

유럽 식민주의는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이 스페인이 지배한 필리핀,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영국의 식민지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그리고 프랑스가 다스린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인도차이나 등에서 어느 곳에서 더욱 강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유럽 식민주의의 영향은 각각의 특수한 역사와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맞물려 깊고 크다. 또 식민주의의 영향은 식민주의 시대가 종식된 이후 오늘날까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힘을 이용하여 독립 국가가 건설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획득한 방식은 다양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이전의 식민지 주인에 대한 무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추구했지만, 이 두 나라에서의 투쟁도 그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달랐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게서 1949년 12월에 독립하기까지 4

년에 걸친 인도네시아인들의 투쟁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의 중재였다. 그에 비해 30년간의 분열과 전쟁을 거쳐 1975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베트남의 독립은 그 기간에 있어서도 훨씬 길었고, 외세의 개입 없이 베트남 민중의 힘으로 쟁취된 것이었다.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들에서의 독립 과정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우와 같은 과격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미얀마, 말라야, 필리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영국과 미국이 네덜란드나 프랑스에 비해 식민지의 독립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주저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도 독립 과정에서 다수민족과 소수민족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국내정치적 문제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는 독립 후에도 오랫동안 양국 정부의 현안으로 남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 이후 종족 갈등과 지역 갈등, 종교 갈등을 겪어 왔는데, 이 갈등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영토의 변경 지역이나 오지에 살고 다수민족이 믿는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고산족들이나 밀림의 원시적인 부족들은 다수민족 사회에게서 종종 차별과 억압을 당해 왔다.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동티모르 분리 독립, 필리핀 남부에서 모로족이 일으키는 분리주의 운동 그리고 태국 남부에서 말레이계 무슬림들과 타이인들 간에 벌어지는 유혈 충돌 등은 고산족이나 원시적인 부족과 다수민족 간의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중앙과 주변 간의 갈등 그리고 상이한 신앙으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화인이나 인도인과 토착인 다수민족 간의 갈등에도 주로 상이한 종교에서 비롯된 문화적 동화의 문제가 있지만, 갈등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그들이 토착 원주민들보다 더욱 잘 산다는 경제적 문제이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이러한 종족·지역·종교 갈등의 대부분은 아시아 이민자들을 불러들이고 국경을 자신들 마음대로 확정해버린 서구 식민주의의 유산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후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국민통합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길인성, “근대 전기의 향료무역과 동남아 경제”, 고우성 외, 『동남아의 정치경제: 산업화와 발전전략』, 서울: 서울프레스, 1995.
- 스트로스, C. L., 『역사와 문명』, 서정철 역, 서울: 서문문고, 1976.
- 위르겐 오스터함멜, 『식민주의』, 박은영·이유재 역, 서울: 역사비평사, 2006.
- 조흥국, “동남아 불교권과 이슬람권의 기독교 선교: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교” 『선교-문화 연구』, 제4호, 2000.
- 조흥국,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기독교 선교”, 『신학과 선교』, 제22집 2호, 2008.
- 조흥국·이광수·이희수·박구병·이한규, 『제3세계의 역사와 문화』, 서울: 방송대학교출판부, 2007.
- Boxer, C. R., *The Portuguese Seaborne Empire 1415-1825*, Middlesex: Penguin Books, 1969.
- Fieldhouse, David K., *Die Kolonialreiche seit dem 18. Jahrhundert*,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65.
- Furnivall, J. S., “Plural Societies”, Hans Dieter Evers (ed.), *Sociology of South-East Asia: Readings on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Goh, Robbie B. H., *Christianity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5.
- Reid, Anthony,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Two: Expansion and Crisi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Steinberg, David Joel(ed.), *In Search of Southeast Asia: A Modern History*, Revised Edition, Sydney and Wellington: Allen & Unwin, 1989.

(이 글은 『동남아연구』 제20권 1호, 2010에 실린 동일 제목의 논문을 약간 고친 것임.)